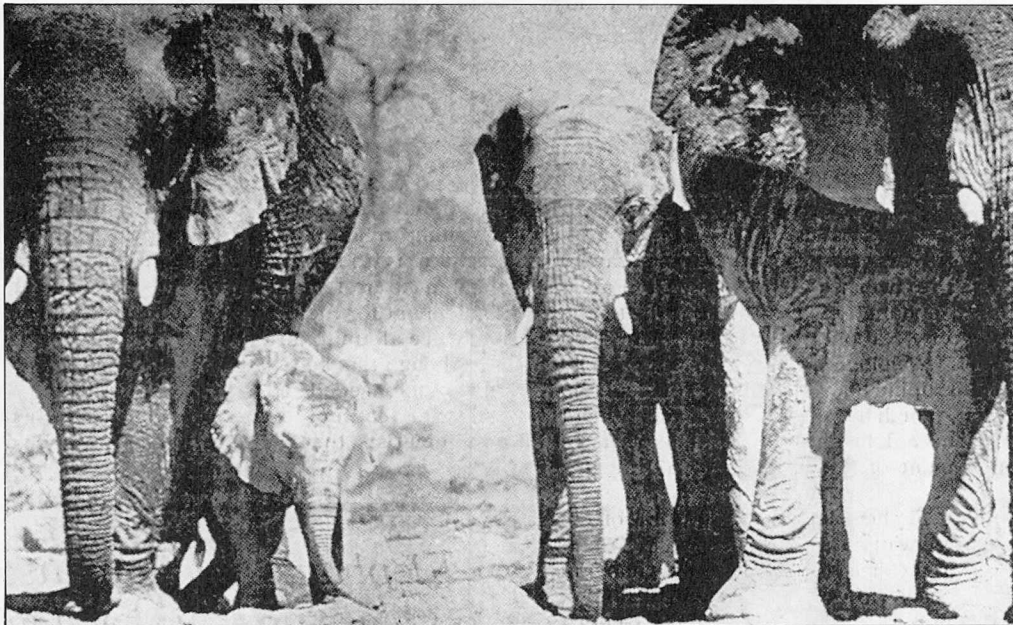


# 현장조사 치밀한 코끼리 종합보고서

더글라스 채드윅 지음 「코끼리의 운명」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나미비아 에토사 국립공원에서 사는 코끼리들.

코끼리를 이야기하기는 쉬워도 코끼리를 알기는 어렵다. 그들의 몸집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몸집의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의 삶과 흡사하다는 점 때문에 이들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코끼리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러한 이해가 피상적이거나 동화식의 주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지라도 왜 있지 않은가, '소경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 말이다. 이런 가운데 코끼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가 나왔다는 점은 코끼리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북돋는다는 점에서, 나아가 환경보호의 일환으로서도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다.

더글라스 채드윅(Douglas Chadwick)이 지은 「코끼리의 운명」(*The Fate of the Elephant*, 492 pp.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은 세계적인 자연풍물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誌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진 야생에 찬 저서이다. 야생 동물학자인 채드윅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후원으로 세계 곳곳의 코

끼리들의 처지를 살살이 조사하여 그들의 현실과 장래를 조망한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책이다.

「코끼리의 운명」은 코끼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채드윅은 미국과 유럽의 서커스 단체 치고 코끼리를 사육하지 않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는 흠은 있지만, 그 외에 코끼리가 발견되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예컨대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지방에 있는 암보셀리 국립공원과 케냐의 짜보 국립공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림지대를 거쳐 일본, 홍콩, 인도, 스위스,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짐바브웨에 이르는 세계 도처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곳곳에서 빚어지는 코끼리와 인간 간의 갈등과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그 가운데 저자는 특히 세계의 여러 곳에서 자행되는 상아 무역의 실태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코끼리를 인간사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인도사람들의 인식과 특히 코끼리 머리를 한 神像, 간디쉬에 경배하는 인도사람들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여

기서 채드윅은 인도의 코끼리치기들이 털어놓는 코끼리와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암내를 낸 숫컷 코끼리의 광포한 행동을 길들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조련사에 관한 것이다. 조련사의 비밀이 뭐냐고? 그 조련사는 한 달 내내 똑 같은 옷을 입고 근 50여년을 코끼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호흡을 맞추었던 데 있다고 한다.

인도 다음으로 방문한 곳이, 자연보호주의자들조차 "세상에서 가장 빌어먹을 곤충"이라는 직설화법으로 칭하는 제페파리가 들끓는 짐바브웨이다. 이 파리들은 특히 칼라리 평원의 코끼리뿐만 아니라 인간 밀도조차 등성등성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그 다음의 행선지는 일본과 홍콩인데 이 곳에서 그의 여행은 한동안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두 나라야 말로 상아 밀수꾼과 코끼리 밀렵꾼을 양산시키는 본고장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이 지역은 '절멸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위원회'의 노력으로 인해 코끼리를 최악의 절멸상태(threatened)에서 그나마 나은 단계인 위기상태(endangered)로

전환시키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지역인 것이다.

채드윅은 위협에 빠진 코끼리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코끼리 자체의 보존보다는 수렵전쟁(game war)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코끼리를 잡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즉 농부는 자신의 곡물을 보존하기 위해 코끼리를 죽이며, 사냥꾼은 고기를 얻기 위해 코끼리를 죽이며 밀렵꾼은 상아를 얻기 위해 죽이니 똑같은 코끼리 사냥이지만 그 사냥의 동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밀렵꾼과 같은 대접을 농부와 사냥꾼에게 적용한다면 그것이 어찌 실제적인 코끼리 보호처방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의 주장은 코끼리 사냥의 동기가 다른 만큼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禁制조치만이 아니라 먹고 살아가 수 있는 방도의 해결이 동시에 시행될 때 참다운 수렵전쟁의 폐기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몇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 책 「코끼리의 운명」은 읽기에도 재미나며 코끼리의 생태와 습관에 대한 공부도 되는 참으로 잘 쓰인 코끼리 백과라고 할 만하다.

## 미래의 인류를 괴롭힐 도전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미래에 대한 식견이 뛰어난 역사가이다. 근래 보기도문 역사학계의 베스트셀러였던 「강대국의 흥망」(1987)에서는 합스부르크 왕가 이후 군사

적 야망과 경제적 성취 사이의 상호 관계를 대담하게 일반화시켰었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오늘날 미국의 현실에 비추어 국가 경제의 쇠퇴가 군사적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론했었다. 요컨대 「강대국의 흥망」은 미국의 '쇠퇴'(declinism)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던 것이다.

현재 예일대학 역사학 교수인 저자는 앞서의 저서보다 더욱 야심찬 저작을 토해 내었는데 그것이 「21세기의 준비」(*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428pp. New York: Random House)이다. 이 책은 차후 4~50년간 인류를 괴롭힐 주요 도전들, 이를테면 인구 기술 그리고 환경문제들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는 세계의 국가들은 이들 도전 앞에 극심한 혼란을 겪거나 끝내 파국을 맞이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어느 나라도 이 새로운 도전을 상치없이 비껴나갈 수 없을 것이며 그 가운데 몇몇 나라는 황폐화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케네디 교수의 이번 책은 맬서스의 인구론과 대비될 것으로 여겨진다. 1798년에 출간된 1판에서 맬서스는 2.48.16 식으로 乘數증가하는 인구와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곡물 생산 간의 가망없는 경쟁에 절망하였다. 얼마 후인 1803년에 출간된 제2판에서 그는 인구와 곡물 간의 비관적 관계를 누그러뜨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곧 1판에서 제기된 파국적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시정한 것이었다.

케네디 교수의 책은 맬서스의 1, 2판 인구론의 요소를 함께 함장하고 있다. 맬서스의 2판과 유사하게 「21세기의 준비」는 광범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파국이 필연적인 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험적 발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케네디 교수의 새 책은 맬서스의 1판에서 오류로 지적되었던 지나친 단순화는 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가운데 일부는 그런 혐의를 내내 보지하고 있다. 케네디의 책이 연구론 1판과 유사하다는 혐의의 초점은 인구와 곡물생산 간의 경쟁이라는 소재적 측면에서의 유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직면할 위기들의 스케일과 상호관련성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라는 성격적 측면에서이다.

따라서 인구증가율을 삼계할 억제책인 기아와 기타 질병들의 희생자가 댈서스의 시대에는 “기껏” 수백만명에 불과했다면 오늘날은 수천만명 아니 수억에 달할 것이며, 머지 않은 미래에는 수십억명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의 확대는 국가단위를 벗어나 국가간에 상호관련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늘날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인구증가율은 신경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동유럽과 구소련,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쏟아지는 이민의 행렬을 본 바 있다. 케네디 교수는 현재 유럽과 아프리카의 인구는 대략 동등하다고 평가하는데—1985년의 통계에 의하면 두 대륙은 대략 각각 4억8천만명쯤으로 추산하고 있다—그러나 한 세대가 지난 후에는 아프리카의 인구는 유럽 대비 3배수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해 보면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025년에 이르기 전에 이미 세계의 인구는 32억에 달할 것이며 이것은 오늘날 세계인구의 60퍼센트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증가율 가운데 95퍼센트는 저개발 국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의 준비」는 인구증가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구학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또 다른 문제점이 그의 연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의 정치 지도와 관계없이 등장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경제 “국가”들이다. 저자는 현재 하루에 1조달러 규모가 교류되고 있는 금융과 커뮤니케이션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교류망은 초국가적인 경제체계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저자는 세계의 350대 다국적 기업의 연간 판매총액이 산업국가들의 GNP의 1/4에 달하며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GNP 총계보다 수백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는 최근 UN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는 새로운 구조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첫째는 다국적 기업체의 능력 속에 함장된 위협은 세계의 저임금지역에서 자신들의 하이테크 생산품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다. 그 현저한 예는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설비를 멕시코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미국내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저자는 단순히 다국적 기업화하는 세계경제의 붕괴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오히려 두번째 측면, 즉 경제생활의 국제화가 가져올 혼란스러운 결과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주권을 위협하는 도전들을 처리할 민족국가의 능력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케네디교수가 보기에 민족국가는 초국가적 기업체의 특정한 전략과 겨루기에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또한 순발력이 떨어지며, 반면 이 세계적 기업체들의 카르텔에 대응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규모라고 본다. 요지는 기존의 국가 경제와 새로이 등장하는 초국가적 경제 사이의 긴장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책에서는 생물공학, 로봇공학, 지구의 온난화들의 문제들에게 대해 저자의 치밀하고 예리한 진단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역시 각각의 문제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되어 21세기의 전면적 위기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이 각론들은 21세기의 현실에 처방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독자들을 감동으로 이끌기에 충분할 만큼 역작으로 보인다. 분석의 깊이와 각 요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논리적 치밀함이 돋보이는 이 책은 앞서 「강대국의 흥망」의 후속편이라고 할 만하다. 댈서스의 인구론 1판처럼 「강대국의 흥망」에서 지나친 단순화의 우를 범했다고 느낀 독자들은 「21세기의 준비」를 통해 補正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에리카 종의 헨리 밀러 이야기 「자유로운 악마」

1974년 4월 풋내기 소설가였던 에리카 종(Erica Jong)은 당시 82세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헨리 밀러(Henry Miller)로부터 한 통의 편

지를 받았다. 에리카 종은 그 몇 개월 전 「날기의 두려움」이라는 소설을 처음 상재하여 평론가들의 날카로운 비평 앞에 의기소침해 있을 때였다. 그러나 밀러는 종의 소설을 루이 페르디난드 셀린의 작품에 비견하면서 상찬을 마지않았다. 또한 그는 종의 소설을 출간한 출판사에도 자신의 칭찬을 선전문구 속에 인용해도 좋다는 편지를 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된 밀러와 에리카 종의 편지는 1975년 종이 밀러가 살고 있던 패시픽 팰리세이드 근교, 말리부로 이사감에 따라 끊겼다. 이때부터 1976년 종이 동부지역으로 갑자기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므로 편지가 불필요했던 까닭이다. 그 후 1980년 밀러의 급작스런 죽음은 그녀를 몹시 놀라게 했던 듯하다. “그는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으로 여겨졌지요.” 그 당시 밀러가 88세의 노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종의 이런 말은 조금 어눌해 보이기도 한다.

그 후 종은 근 10년간에 걸쳐 ‘내가 본 밀러의 책’이란 주제로 칭송의 글을 써 왔는데(물론 그동안 이외에도 여러 권의 소설과 시를 써왔다) 밀러 사후 13년 만에 이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 「자유로운 악마」(「THE DEVIL AT LARGE, Erica Jong on Henry Miller”, 334 pp New York : Turtle Bay Books)다.

「자유로운 악마」는 급히 묶은 팜플렛 모음처럼 보인다. 짤막한 서문에 뒤이은 본문의 첫번째 글인 ‘가난한 출생 : 헨리와 나’는 밀러와 종의 유사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의 길지 않았던 친교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은 거의 150페이지 분량의 밀러의 略傳을 싣고 있으며 3편의 에세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에세이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속에서 종은 “인간의 미래는 우리 모두 밀러 저작을 지금 당장 읽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간단치 않은 ‘선언’을 하고 있다. 끝으로 종과 ‘아직도 살아있는’ 밀러 사이의 “상상의 대화”를 볼 수 있으며 뒤이어 발문과 주고받은 편지, 밀러의 저작과 밀러를 이해하기 위한 2차 자료들의 목록이 실려 있다.

「자유로운 악마」를 전기라고 칭하기에는 지나치게 분량이 짧고 또

한 삶에 대한 기록이 깊지 않으며, 회고록이라고 칭하기에는 저자가 회고라는 주제에 국한하여 글을 잊고 있지 않으며, 서한집이라고 칭하기에는 기껏 26편의 편지만이 상재되었을 뿐이며 그리고 작가연구라고 하자니 작가에 관한 자료는 많이 올려져 있으나 비평적 거리는 보이지 않으니 이 책의 성격을 무어라 재단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 책에서 종의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밀러가 결코 포르노 작가나 섹스 지상주의자가 아니라 그는 자유를 추구한 사람이며, 또한 자유의 예언자라는 주장에 있다. 그녀는 이 점을 누누이 그리고 단호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밀러에 대한 상식적 이해로부터 그를 구출하기 위한 강력한 변론이자, 증언이다. 밀러의 가장 유명한 저작이자 가장 노골적인 소설들인 「북회귀선」(1934)이나 「섹서스」(1949)는 종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수준이 낮은 것들”이다. 그녀가 보기에 밀러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덜 알려졌지만 「그리스에 대한 영혼의 순례서」인 「마로우시의 콜로수스」(The Colossus of Maroussi)이다. 그리고 이 책 속에는 섹스에 관한 대목은 하나도 없다.

미국사회의 “섹스공포증과 섹스 광”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 의해 밀러의性に 관한 책은 금지되었으며 그에게 포르노 작가라는 딱지를 붙였던 것인데 종의 관점에서 이러한 섹스에 대한 공포와 들림은 둘 다 밀러가 독자들에게 제시하려는 가르침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그녀는 “밀러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함으로써 참다운 혁명의 시작은 우리 내부로부터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고자 했다. 그는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의 신성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목청을 돋우어 그의 입을 막아왔다”라고 열변을 토한다. 또는 “우리가 밀러와 그의 외침을 적절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가능성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진리”라고까지 강변한다.

그러나 이런 옹호는 지나친 것 같다. 종은 지금 밀러를 전통적인 “예언자” 이라 하면, 예수나 르네상스 시대의 사보나롤라에 견주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느 독자건 “밀러는 남성중심주의를 외친 것이 아니

라 여권옹호를 주장했다”는 종의 말에는 동조할 수 없을 것이다.

종은 대중매체, 특히 텔레비전을 혐오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영상 이미지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노예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노예의 길에 대한 경고를 밀러의 글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텔레비전에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할 것인데, 물론 밀러의 책을 읽음으로써 진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종의 입장으로는 그것은 특히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있어 그러하다는 것이다.

1974년으로 돌아가자면 밀러는 종의 소설 「날기의 두려움」이 그의 「북회귀선」과 흡사하다고 적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종이 한 권의 책—「자유로운 악마」속에서 자신과 밀러의 유사점, 즉 삶과 경력, 그리고 특히 평판에 있어 유사점을 중언부언하게 된 실마리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녀는 밀러의 “운명”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내 운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활자화된 섹스”와 “어쨌거나 이제는 섹스작가라는 평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짐작컨대 종은 자신이 밀러와 마찬가지로 “비평가들의 옹호를 받지 못하고 대학에서 자신의 소설이 가르쳐지지 않으며 그리고 싸구려 대중소설로 취급받는 현실”을 비분강개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그러나 「자유로운 악마」를 읽은 독자 가운데 “에리카 종의 소설을 읽음으로써 성숙한 인간이 되겠구나”라고 결론을 지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게 하는 이유는 종이 의도했던 아님도 밀러라는 대가의 운명을 자신에게 지나치게 밀착시킴으로써 밀러의 해방을 곧 자신의 해방으로 유추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로운 악마」는 위대한 죽은 작가에 대한 찬사라기보다는 상처받은 살아 있는 자의 비명으로, 다시말해 자기옹호의 목소리로 들리는 책이다.